

봉초·‘까치담배’의 부활

(개비)



담뱃값 인상...흡연자 천대만상

대학가 등 1개비 300원에 판매

애연가들 편의점서 봉초 구입

해의출장 지인에 면세점 담배 부탁도

중장년층이나 노인에게 추억으로 여겨졌던 '봉초(封草)'와 '개비 담배'가 부활했다.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이나 고시생, 공무원시험 수험생,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이름도 생소한 봉초와 개비 담배(1개비 300원)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흡연자들은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수입 담배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거나, 외국으로 출장가는 지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등 저마다 '할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흡연자들 사이에선 '개비 담배에 이어 봉초가 부활하다니...', 70년대(代)로 후퇴하고 있다', '이제 곧 거리에서 공방대 물고 다니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불만섞인 농담도 나온다.

◇되살아난 봉초, 개비 담배=봉초는 잘게 썬 담뱃잎을 종이 봉투에 담아서 파는 형태로 흡연자가 직접 담뱃잎을 종이에 말거나 공방대에 넣어 피운다. 지난 1950~1970년대까지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이 주로 피우던 담배다. 필터가 없어 건강에 더 해롭고 맛도 독하지만 필터가 있는 일반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탓에 주로 서민층이 애용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매정(현 KT&G)이 생산을 멈추면서 잊혀져 갔는데 올 초 담뱃값 인상 여파로 다시 봉초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봉초는 현재 일부 편의점이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비층은 대학생이나 재수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흡연자들이다.

한 언론은 기획재정부가 KT&G에 봉초 생산 재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기재부는 "봉초 생산은 담배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관악구를 중심으로 한 고시촌 일대에서는 사라졌던 '개비 담배' 판매도 부활했다. 가격 인상으로 한 갑씩 담배를 사지 못하는 수험생 등 흡연자에게 한 개비에 300원씩 파는 '개비 담배' 판매가 시작된 것이다.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파는 것은 담배 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단속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흡연자들 담배 구하기 '전쟁'=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판매점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기존보다 2000원 이상된 4500원까지 치솟은 담배를 쉽게 구매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흡연자들이 일제히 '금연'을 선언한 것도 아니다.

부지런한 흡연자들은 정부의 가격인상 방침 발표가 나온 뒤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격이 인상되기 전 편의점이나 마트를 돌며 1~2갑씩 담배를 사서 모아둔 것이다.

직장인 박모(30)씨는 "귀찮더라도 발품을 판 덕에 가격이 오르기 전 사서 모아둔 담배 100갑을 조금씩 아껴 피우고 있다"며 "다음주가 되면 미리 사둔 담배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4000~5000원이나 주고 담배를 사서 피워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직장에 다니는 애연가들은 해외 출장가는 지인에게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와달라고 부탁하거나 아직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수입담배(던힐, 메비우스, 보그 등)를 찾아 나서는 형편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의 한 대학생이 5일 직접 편의점에서 산 봉초와 필터, 종이, 포장기구를 이용해 담배를 만들고 있다. 종이에 40g 담근 봉초는 덴마크 산으로 7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100개비를 만들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비정규직 896명 2년내 정규직 전환

신분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왔던 광주시청 비정규직 직원들이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896명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보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366명 중 간접고용 형태의 용역 근로자 896명 전원을 단계별·시기별로 정규직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계약기간이 임박하고 처우가 열악한 시 보청 소속 간접

고용 용역근로자 74명을 1차 전환대상자로 선정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

1차 전환대상자는 청사방호, 청소 시설 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달 말과 다음달 초 대부분 계약기간이 만료돼 이번 조치로 직접 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 고용불안이 해소된다. 이들은 2년 근무 뒤 2017년 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된다.

2차 전환대상자 822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별 경영효율성과 특성을 고려한 임금 노무관리 체계 등을 마련한 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도 내년말까지 직접고용 형

태로 고용방식을 바꾸고 2017년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신분이 전환되면 기본급 외에 연차수당, 교통비, 식대, 직무수당, 상여금 등을 매월 정기적인 통상임금으로 보장받는다.

시는 1차 전환으로 인한 재정부담 분석결과 2년간 소요예산이 50억5200만원으로, 민간위탁시 54억9200만원보다 4억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1366명 중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 300명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되면 자체 전환하고 단시간 근로자 170명도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진료 시작

광주·전남혁신도시 내에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5일 진료에 들어갔다. 혁신도시 빛가람동 주민센터 뒤편에 자리를 잡은 지원센터는 소아과, 내과, 한의과 전문의 등의 의료진이 배치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제과학국장에 정종문 부이사관 전남도, 실·국장 등 19명 인사

전남도는 5일 실·국장, 준국장, 부단체장 등 1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일자로 단행했다.

경제과학국장은 교육을 수료한 정종문 부이사관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전중화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F1 대회조직위원회 본부장에는 고성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

장을 임명했다. 배택후 경제과학국장과 문동식 F1 대회조직위원회 본부장은 교육과견된다. 대변인에는 조용익 인제대성과장, 정책기획관엔 김명원 관광과장, 의회사무처 의정지원관에 윤승중 장흥부군수를 임명했다.

회순부군수에 박봉순 F1 대회지원담당관, 장흥부군수에 서은수 정책기획관, 강진부군수에 박수철 혁신도시건설지원

단장, 함평부군수에 홍영민 자치행정과장, 곡성부군수에 김신남 지역경제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방축길 대변인은 교육과견된다. 이광수 곡성군 부군수와 정승준 강진군 부군수는 전남도 보청으로 전임했고, 윤인후 전 광양시 부시장, 김연태 화순군 부군수, 설인철 함평군 부군수는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정필수기자 chae@

검찰 '정윤희 문건' 허위 결론...여전히 남은 비선 의혹

비선 실제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희 문건' 내용은 문건을 과장해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고,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용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복사한 EG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보실에 집을 보관할 때 그의 집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경위는 진본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에게 문건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의혹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윤희 문건'에 담긴 '심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 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노안·노안라식/Kama Inlay를 이용한 시술/초점 인공 수정체 /계속렌즈/레이저를 나비비전 인레이

부작용:수술 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증-59153호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는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송하여 드립니다.